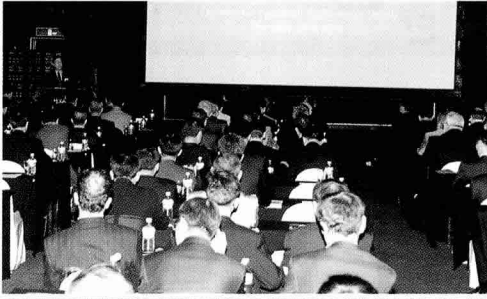


한·영 방산협력 세미나 개최

양국간 항공우주, 방위산업 상호 협력방안 모색



한국 방위산업진흥회와 영국 방산수출청(DES0)은 양국간 항공우주/방위산업 분야의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영 방산 협력 세미나를 지난 4월 28일 하얏트 호텔에서 200여

명의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측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T-50 고등훈련기를, 한화가 항공우주사업부의 업무를 소개하였고, 영국측에서는 Agusta Westland, BAE Systems, Thales UK, FHL(Claverham)사의 개략적 소개가 진행되었다. 2부에는 Rolls Royce사 등 15개 영국업체가 4개의 상담실로 분산되어 설명회와 함께 양국 유관업체간 사업상담을 나누었다.

또한 29일에는 영국 방산수출청장, 주한 영국대사관 직원 및 방산업체 관계자와 한국측 국방부 및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친선 축구대회를 갖기도 하였다.

육군, 전력증강 공개 설명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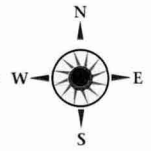
전력증강 관련정보 공개로 무기획득업무 활성화에 기여



육군 은 지난 5월 13일, 계룡대에서 방산업체 및 벤처기업 관계자, 방위산업 관련 연구원, 전력증강분야 군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증강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전력증강 공개설명회」는 육군이 방위산업과 관련되는 국내 연구기관과 관련업체들을 한자리에 초청하여 지상군 전력발전의 기본방향과 전장기능별 전력증강 목표,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무기체계와 요구성능 등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행사이다.

관련 기관과 업체가 육군의 전력증강 방향을 참고하여 연구개발 방향과 사업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산개발의 동기를 부여함은 물론, 軍·産·學·研의 공동노력을 결집하여 군사과학기술개발 활성화, 무기체계 국산화 촉진 등을 도모하고 아울러, 육군전력증강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방투자 사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해 나가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최근 이라크 전쟁을 통해 드러난 첨단 무기체계 위력
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열린 분위기에 진행된
이 날 공개 설명회에서는 「정예 Digital 육군건설」을 지
향하는 육군의 전력증강 기본개념 소개에 이어 향후 5
~10년 사이에 운용 예정인 6개 기능 분야 50여개 중
점 사업에서 요구되는 무기능능, 육군의 무기체계 획득
업무 기본방향, 개발 업체에 대한 협조 요망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이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시뮬레이션 모델 상호연동」,
「차기병사 통합 헬멧」에 대한 신기술 소개와 함께 첨단 디
지털 병사체계에 대한 연구개발 동향을 발표하여 관련 업
체 및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육군은 매년 전·후반기 정기 무기체계 소개회, 전력발
전 워크샵(Work shop) 등을 통해 방산업체에서 개발 및
제안하는 신 무기체계와 기술에 대한 정보공유를 지속적으
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품관소,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 성공 발표회

나노기술을 이용한 방독면 필터재 개발 등 9개 개발 사업



3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되는 등 경제적인 면
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은 정부로부터 개발자금을 지
원받아 품관소의 전문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애
로기술을 해소하고 개발된 기술을 제품화하여 중소기업 경
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범 정부적 차원의
사업이다.

품관소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중소기업
청의 자금지원 아래 (주)제노시스 등 9개 참여기업과 산·
학·연 컨소시엄을 구성, 9개 과제에 대한 기술개발에 성
공했으며, "이중 2건은 특허출원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주)삼영필텍이 개발에 성공한 "폐 소총탄 자
동 분해장비"는 시간당 4,000발의 고속으로 소총탄을 분
해할 수 있는 성능과 각종 안전장치를 구비하고 있어, 이
장비가 내년부터 군에 보급될 경우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
용의 이중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종래에는 폐 소총탄 폐기
시 안전상의 문제로 주로 소각처리 하여 왔으며, 이로 인
해 환경오염과 자원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품관소는 제1차 사업을 통해 14개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2차 사업 9개 과제 또한 기술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사업
을 준비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군수
기반 확충을 위해 군용물자부품 국산화사업과 국방벤처보
육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 품질관리소는 지난 5월 15일 품관소 국제회
의실에서 제2차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종료
에 따른 발표회를 갖고 개발에 성공한 9개 개발기술을 소
개하고 개발품에 대한 전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는 이일규 중소기업청 기술지원국장, 2002
년도 컨소시엄 참여기업 및 2003년도 컨소시엄 참여예정
기업의 대표이사과 임직원, 국방부, 한국기술벤처재단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 등 총 110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원형 국방품질관리소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번
산·학·연 컨소시엄 9개 연구과제 모두가 바로 생산에 적
용 가능한 기술이며, 가까운 시일내에 군에 보급, 활용될
수 있어 국방력 향상이 기대되며, 아울러 금번 산학연 기
술개발을 통해 군수분야의 기반기술 확충뿐만 아니라 연간